

재난기본소득 경제 회복 도와 에너지 복지 사업 대규모 추진

진안군, 지원금 사용처 분석 결과 장보기·외식 78% 지출

진안군은 24일 지난 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된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던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작년 6월(1차, 20만원), 12월(2차, 10만원) 두 번에 나눠 총 3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는 전북 도내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중에서 최고금액으로 전 군민에게 지급됐다.

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차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최종 정산을 받고 그 쓰임새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 총 2만5,334명 중 96.8%인 2만4,515명이 선불카드를

수령했으며, 작년 12월 2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지원금 총 23억8,100만원이 사용됐다.

특히 선불카드 집중 배부기간이자 연말인 12월에 지원금의 41%(9억8,100만원)가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지원금이 쓰인 곳은 ▲마트·편의점 53%(12억6,100만원) ▲주유 17%(4억1,000만원) ▲음식점 8%(1억8,2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재난기본소득의 78%가 장보기와 외식에 사용되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때와 같은 결과로 군민들의 기본 생활 영위에 다수 소비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패션(의류)잡화 5.6%(1억

3,400만원) ▲병원·약국 4.7%(1억1,200만원) ▲뷰티·스포츠 1.8%(4,200만원)로 조사됐다.

주민 최 모씨는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장도 보고 병원, 약국도 이용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두 번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이 마치 기쁨의 단비 같았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 지역 내 주민밀착형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현안사업 해결 위해 동분서주

한국환경공단 방문 지역발전사업 지원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의 국가예산확보,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에 이어 올 3월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행보다.

전 군수는 지난 19일 인천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프로그램 지원, ▲2022년 신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필요성 및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공단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센터는 전국 최초 환경부 지원시설로 코로나19 등 새

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2022년 신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전북, 충남권 주민 15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용담호 상류 27개 마을에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하수처리 증설 및 하수처리 구역 확대를 위해 2022년도에 23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북권 환경성질환 센터는 공단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호남권지역본부 등을 통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담호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이 필요한 진안의 현실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진안의 천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9일 인천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지역발전사업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정화 활동 실시

무주군이 반딧불이 신비탐사지로 활용되는 반딧불이 서식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환경축

제인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위해서다.

이번 활동은 서식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주요 서식지인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했으며, 반딧불이가 살기 좋은 최적의 서식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군에서 대표적인 반딧불이 서식지는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과 후도마을, 부남면 도소마을, 설천면 수한마을 등 모두 7개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0억8000만원 투입

무주군이 무주읍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2중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일 지역 내에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공공·산업건물 등이 혼재된 지역과 마을에 신재생에너지원시설을 설치,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0억8,000만원을 투입(국비 15억3,000만원 포함)해 무주읍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278개소(태양광 217, 태양열 10, 지열 51)를 설치하게 된다.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월 발전량 324kWh 내외의 가정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월 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군은 지난 1월 29일에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주민대표 등과 함께 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시공에 착수, 오는 1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또 무주읍을 제외한 5개면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한 2022년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기료 절감과 함께 폭염과 혹한 등 이상 기온에 따른 에너지 소비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실현이 기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시가스 설치가 되지 않은 에너지 취약 지역에 에너지 복지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대상지 이외에도 에너지 취약 지역에 연차적·지속적으로 사업을 공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영농과쇄기 임대 등 산불 예방 총력

장수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영농과쇄기 임대 사업을 실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6월 10일 까지 불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상황실(3명), 진화대 8개조(35명)를 투입해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소각금지 계도와 농산부산물 파쇄지원,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산지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수확 후 남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른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영농과쇄기를 무상 임대(유류비 제외)하고 있다.

현재 산불진화대대기초소에서 보유 중인 영농과쇄기는 총 6대로, 장수군 거주자 중 기계 사용 교육을 받고 이행이 가능한 자면 모두 가능하다.

이장 등 마을대표가 영농부산물 공동 파쇄 작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하다.

군은 각 읍·면 산업팀과 협조해 영농과쇄기 임대 홍보 및 사용 안내를 하고 있으며 운반 및 반납은 산불진화대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관내 택시 연합회와 무진장 여객과 연계한 산불 홍보 활동 예정이며, 오는 26일에는 전 직원을 투입해 담당 읍·면별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산 언덕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므로 작은 불씨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개개인부터 주의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전춘성 진안군수, 시설재배농장 현장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24일 관내 시설재배 농장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출하동향을 살펴보고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마령면 토마토 재배하우스, 성수면 딸기 고설 수경재배 하우스, 백운면 삼채소 농장, 마령면 고추 육묘장 등이다.

특히 성수면 '라라네 딸기 이야기' 농장에서는 4년 전 귀농하여 딸기 농사에 도전하여 첫 수확을 하고 있는 정유복 농장주로부터 농사 경험에 대해 경청하며,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런 수확의 결과를 전주에 위치한 진안로컬푸드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표했다.

또한 마령면 토마토 재배하우스 정유복 씨 농장에서는 수확현장을 살펴본 뒤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최첨단 기술 적용사례와 외국인 노동자 수급상황 등에 대해 관심 있게 청취했다.

전 군수는 함께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기술보급에 주력해 줄 것과 난병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무주군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보조기를 지원(1대당 15만원, 총 60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1~3등급을 받은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와 기타 보행에 불편이 있는 어르신(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등이다.

신청은 오는 4월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하면 되며 군에서는 대상자 확정 후 5월 중순까지 물품을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